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

**왜** 시행되었을까?

WHY?



여러분은 7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?  
든든이는 **‘생활주변방사선’**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.

바로 **지난 2012년 7월부터**  
**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’**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죠!  
오늘은 **왜 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’**이 생겼는 지 알려드릴게요.

# 방사선은 인공방사선과 자연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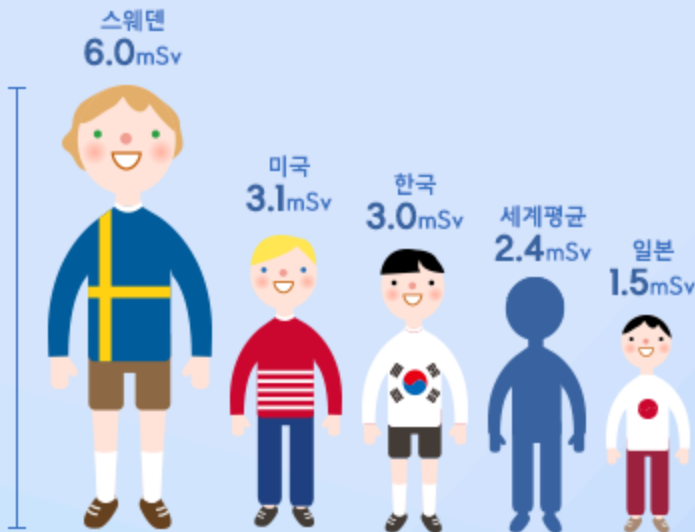
## 방사선

**인공 방사선** : 인위적으로 만든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

**자연 방사선** : 토양, 암석, 음식물 등에 미량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과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

**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인공방사선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**

## 나라별 연간 자연방사선량



반면 일상 생활 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연방사선은 토양 등의 차이로 인해 나라별 자연방사선량의 차이가 있습니다.

우리나라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개인이 받는 자연방사선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, 약 3.0mSv(밀리시버트) 정도입니다.

산업의 발전과 건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 
**자연방사선을 함유한 광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을**  
**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했습니다.**



모나자이트



저어콘



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 
**천연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과 이를 이용해 제조된 가공제품에 대한**  
**관리감독이 필요**하게 되었습니다.



또한 국제 항공 노선의 확대, 재활용고철 수입 증가로 인해 생활 주변에서 추가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감시 및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

**이런 배경에서 2012년 7월 26일 생활주변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'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'이 시행된 것입니다.**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을 받지 않고  
**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**  
생활주변방사선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
**국민안전주의 원자력안전위원회**